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멘터(mentor)와 멘티(mentee)에게 미친 상호적 발달 효과를 중심으로

박 현 선**

이 연구는 실직가정 자녀와 같은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방안으로서 정서적 결연 프로그램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이다. 즉, 대학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직가정 자녀는 물론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주관적인 프로그램 만족도와 통제집단 후 비교설계로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직가정 자녀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대인관계기술, 자기유능감, 계획성,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표현력이나 자기주장,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이해나 학교생활과 친구에 대한 의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통제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직가정 자녀와 같이 고위험의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도 효과적인 성장지향적 프로그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연구는 전북대 사회복지지원센터의 실업관련 연구총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장과 기회를 주신 전북대 최원규 교수님과 지원센터 실무진에게 감사드린다.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 실직가정 자녀를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언론매체나 신문지상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시점에서 실직가정에 대한 논의는 자칫 진부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상당수의 실직가정이 존재하고,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혹자는 모든 실직이 동일한 실직이 아닌데 어떻게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게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 온 중산층 자녀가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McLeod & Shanahan(199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도 등의 이유로 중산층 가정에서 겪는 급성적인 실직은 자녀의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높이고,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실직과 빈곤 상태에 놓인 자녀들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적 문제를 보다 많이 갖는다고 한다. 즉, 중산층의 실직이든 빈곤층의 실직이든 간에 실직으로 인해 자녀들은 비행과 학업이탈 등과 같은 문제를 보일 뿐 아니라 당장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실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만성적인 우울이나 불안으로 내재화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실제 전국 626개의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김승권 외, 1998)에 의하면 실직에 따른 정서불안으로 11.9%의 자녀들이 학업성적이 떨어졌다고 답했으며, 자녀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시킨 가정도 9.1%에 달했다. 또 실직가정의 29.1%가 자녀들의 사교육을 중단했고, 폭력이나 결석, 음주, 흡연 등 자녀들의 비행을 호소한 실직가정도 3.3%에 달했는데, 특히 여성 가구주가 실직한 가정에서는 10.9%가 자녀의 비행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실직가정의 자녀 49%는 정서적으로도 불안감과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경제적 위기는 급속도로 만성적인 심리사회적 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관심은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가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부분은 실직으로 인한 결식아동지원이나 학자금지원 등으로 주로 직접적인 경제적 원조나 이를 위한 보

조서비스들로 이루어졌고, 가족해체나 자녀들의 부적응 과정을 다루어 주는 심리사회적 원조는 상당부분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심리사회적 원조에 대한 상대적 소홀의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원조할 것인가가 불분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정 대상에 대한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를 표적 문제로 삼느냐는 것이다. 즉, 대상 인구가 겪는 다양한 문제들의 우선 순위를 매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변화가능한 표적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개입의 지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실직가정 자녀를 위한 개입을 수립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물론 실직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단순히 실직을 경험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적응 청소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즉, 이들이 실직이라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고는 있으나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직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가시화된 특정 문제에 대한 사후개입이기 보다는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이 되어야 한다.

부모의 실직, 빈곤, 발달장애 등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적응과정을 원조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의 이론적 틀로서 자주 논의되는 개념이 바로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다. 적응유연성이란 스트레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향받으며, 유능감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이다(Luthar, 1991). 적응유연성이라는 개념이 고위험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예방적 원조틀로서 갖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복잡한 발달 메커니즘을 갖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입전략으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에서도 실직가정 자녀들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심리사회적 개입은 실직가정 자녀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 간의 정서적 결연 즉, 대학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campus-based mentoring Program*)이다.¹⁾ 멘토

1) 우리나라에서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정서적 결연사업은 1998년 이후 대학부설복지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나누미 프로그램, 전북대학교의 담쟁이학교,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진 학교사회사업시범사업, 보호관찰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와 기관에서 이루어진 바

링 프로그램이란 건전한 역할모델과 청소년간의 친밀하고 상호적인 일대일 관계를 통해 요보호 청소년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김상균 외, 1997), 고위험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실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 관계를 통해 건전한 역할모형을 제시해줌으로써 실직가정과 같은 고위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약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원조하는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병리적 개념을 극복하고, 청소년의 발달단계적 특성을 반영한 성장지향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으로 이루어지며,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있는 대학생과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요보호청소년들이 서로의 성장과 발달에 상호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지지적인 관계를 제공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거의 없다. 특히 상호적 발달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더욱 부재하다. 게다가 실천가들 사이에 멘토링의 개념이 불일치하고, 적절한 실천틀 또한 없는 실정이다(Tierney & Branch, 1992).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실직이라는 고위험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대학현장과 실직가정 자녀들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나아가 멘토링 프로그램의 두 당사자(대학생결연자와 실직가정 자녀) 각각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이 연구의 가장 궁극적인 산물은 실직가정 자녀에 대한 효과이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성이 상호적인 발달에 기여하는 데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실직가정 자녀들뿐 아니라 원조자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발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있다. 이 연구는 전북대학교 사회복지 센터의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는 담쟁이학교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담쟁이학교 프로그램은 1998년 이래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학기별로 상이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1999년 3월~7월까지 수행된 봄담쟁이학교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실직가정 자녀를 위한 심리사회적 원조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는 무엇인가?
- ②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 ③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직가정 자녀들의 적응유연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④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증진시키는가?

2. 실직가정 자녀를 위한 개입의 이론적 전략으로서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Resilience)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 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서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즉,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의 복구능력이다. 즉, 역경을 겪으면서 개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잃었지만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Garmezy, 1993).

적응유연적인 아동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정한 스트레스를 수용하거나 참고, 피하고, 최소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그들의 양육자나 교사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장소는 피하기도 한다(Hernandez, 1993).

이와 같이 적응유연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실직가정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요소들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적응유연성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적응과 관련된 다른 정의들도 그러하듯이 적응유연성은 문화적 가치와 이러한 가치가 통용되는 상황적 맥락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Hernandez(1993)나 박현선(1998)의 견해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의 적응유연성을 구체적인 학교 상황에서 규정하고자 한다. 청소년기에는 학교라는 세팅이 심리사회적 영역은 물론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도 적응유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이기 때문이다. 즉, 적응유연적인 청소년이란 실직이라는 고위험의 역경 상황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하여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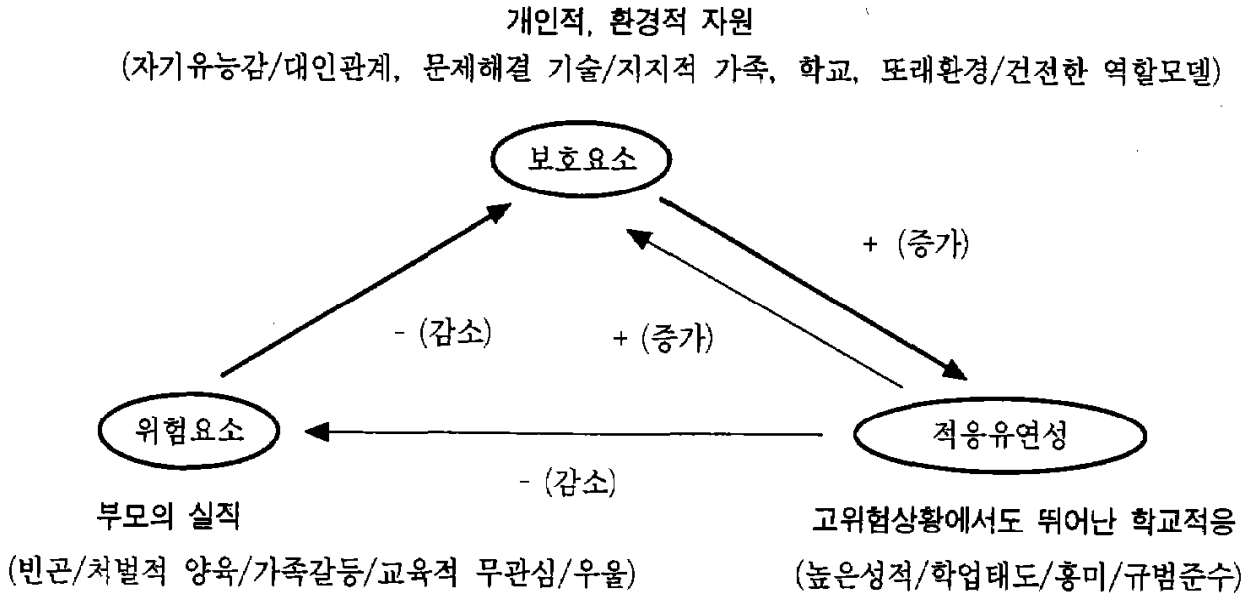
그러면 적응유연성은 어떠한 경로로 발달하는가? 기존에 많은 적응유연성 관련 연구들이 고위험에 처한 대상들의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위험요소들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보호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모델이 위험·보호요소의 상호적 인과관계 모델이다. 우리나라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유연성의 발달 메커니즘을 연구한 박현선(1998)은 적응유연성의 발달과정을 위험·보호요소의 상호적 인과관계 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위험요소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호요소가 매개적으로 완충하는 기제를 갖는다는 것을 밝혔다. 즉,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요소가 있다면 적응유연성이 증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에 입각하여 박현선(1999)은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즉, 실직이라는 역경에서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긍정적인 학업태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를 가지며, 학교의 규범을 잘 지키는 능력을 적응유연성이라고 정의할 때, 이러한 적응유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교육적 무관심, 우울 등을 감소시키는 위험요소 경감전략과 유능감이나 대인관계나 문제해결기술 등을 비롯한 보호요소 증진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 보다 뛰어난 적응을 보이게 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러한 학교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다시 유능감과 같은 보호요소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우울과 같은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피드백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²⁾

2) 실직가정 자녀 원조를 위한 위험 및 보호요소 추출과정은 박현선(1999)을 참조할 것.

〈그림 1〉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발달 메커니즘



3.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유용성

적응유연성의 개념, 보호 및 위험요소를 가장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적응유연성 개념은 이론적으로 정교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전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호요소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일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위험요소의 경감과 다양한 보호요소의 증진을 모두 포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은 이러한 요건들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실천틀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고위험 빈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메커니즘 연구에서도 적응유연성 증진의 효과적인 전략으로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박현선, 1998).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성인과 청소년간의 친밀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결손가정, 빈곤가정, 실직가정 및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김상균 외, 1997).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의 직접적 수혜자인 요보호 청소년과 직접적 제공자인 성인 역할모델,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총괄 지원하고 기획하는 전문가집단이 관여하게 된다. 일 대 일 결연관계를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역할모형을 제시해주고, 청소년들과 정기적 만남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제공해주는 역할모형을 멘터(Mentor)라고 부른다. 또한 멘터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고민과 관심사에 대해 위로, 지지, 격려를 받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들을 멘티(Mentee)라고 부르고 있다(김상균 외, 1997).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적 요소로서 결연관리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맺어주는 매개역할 수행과 이후 맺어진 결연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기획자와 사례관리자의 역할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1985년에 창설된 전국규모 비영리 조직인 Campus Compact이다. 이 조직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우선사업으로 정하고 학교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한 학생을 대상으로 5개년 사업을 수행했다. 또한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센터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지역학교체계, 지역사회조직, 주정책기관, 고등교육기관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기능을 했다(Tierney & Branch, 1992).

멘토링 프로그램,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실직가정 자녀들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보다 많은 특성을 갖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의 유연성과 내용의 포괄성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터, 멘티, 결연관리자만 존재하면 그 형식이나 내용은 매우 유연하고 포괄적이다. 애초에 일 대 일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일 대 일 관계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나 부담스러운 부분은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이나 활동 등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다(Butcher & Hall, 1998; Tierney & Branch, 1992).

이와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형식이야 어떻든 간에 지속적이면서 충분한 교류가 가능한 접촉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일 대 일 대면 만남 외에도 통신이나 전화연락, 캠프활동 집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결연관계의 독특한 신뢰감과 연대감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Butcher & Hall, 1998;

Tierney & Branch, 1992). 이러한 형식의 유연성과 내용의 포괄성으로 인해 앞서 논의한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보호요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일대일 결연을 통해 건전한 성인 역할모델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구조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학습지도, 캠프 활동이나 취미 활동 등을 프로그램 내용에 결합하여 일대일 관계에서 충족하기 힘든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서비스 효과의 상호성이다. 청소년 후기에 있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실직가정 자녀들의 관심과 경험의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 스스로도 성인기로의 전환에 중요한 많은 심리사회적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 예컨대 정체감과 가치관 확립, 사회적 상호작용 및 성인역할에 필요한 능력 등을 갖고자 한다(Tierney & Branch, 1992). 즉,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명시적 목표 속에 멘티뿐만 아니라 멘터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대학생의 관심, 에너지, 열정, 능력을 활용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실직가정 자녀와 같은 요보호 청소년의 욕구를 보상하고, 대학생 자신도 성인 세계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교육적 목표와 지역사회 기여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지속성이다. 대학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연결과 관리 체계만 구축된다면 지속적으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학과의 전공을 고려하여 연결하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물론 멘토링 프로그램이 정서적 결연 자체를 주요한 서비스 매개체로 활용을 하는 것이나 전문성을 살려서 보완적 서비스를 구조화하여 결합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대일 결연 외에도 교육학 전공 학생들에게 구조화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적으로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전공 학생들에게는 정서지원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한다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학내 인적 자원을 프로그램 요소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902년 최초로 Big Brother 기관에서 성인 자원봉사자와 고위험 청소년과의 공식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이래, 비교적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Royse, 1998).

그나마 이루어진 외국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도 주로 결연대상 청소년

즉, 멘티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Frecknall과 Luks(1992)의 연구에서는 뉴욕시의 BBBS(Big Brother/Big Sister)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를 둔 76명의 부모들을 대상의 조사를 검토한 결과, 63%의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이 태도와 행동 면에서 현저한 개선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개선을 보다 많이 보고하고 있었다.

대학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구한 Tierney & Branch(1992)가 보고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멘티들은 자아개념, 통제소재(*locus of control*), 사회적 지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한편, Nelson과 Valliant(1993)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요보호 청소년 6명, 양친과 함께 사는 중산층 청소년 27명, 보호관찰기관의 비행청소년 18명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점수는 프로그램 대기 집단에 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와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티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Hamilton과 Hamilton(1992)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티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논의했다. 즉, 1수준의 멘티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2수준의 멘티들은 멘티들에게 관계를 통해 다양한 기회를 소개해주는 것을 중시했고, 3수준의 멘티는 성격형성에, 4수준은 유능감 증진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관계형성보다는 학습적인 요소에 강조점을 둘수록 보다 순기능적인 결연관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성인 결연자, 즉 멘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고, 소수 이루어진 연구도 주로 성인 결연자보다는 대학기반의 대학생멘티들에게 초점이 두어졌다. 적지만 멘티와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가족관계의 질, 의사소통행동 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Tierney & Branch, 1992).

이와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티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적지만 멘토링 또한 '봉사를 통한 교육'(*service learning*)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굳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청소년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Conrad와 Hedin(1989)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유능감, 자아와 도덕발달,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도전의 수용과 위협의 감소, 가치와 신념의 수정과 강화, 책임감의 향상, 자기행동의 결과에 대한 수용 등과 같은 개인적 성장과 발달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Riecken(195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빈민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 결과, 2개월 후에 그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편견이 줄었고, 보다 민주적이고, 봉사지향적으로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대학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터와 멘티 양자의 자아존중감이나 적응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그러한 긍정적 산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결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결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 매체를 개발해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데 있다고 하겠다.

4.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설계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 구성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된 것은 실직관련 위험요소의 감소와 더불어 위험을 다루는 효과적인 자원 즉, 보호요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개입방안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습지원적 요소, 문제해결 및 대인관계상의 능력, 자존감 등의 개인적 보호요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서지원적 요소, 건전한 성인역할모델의 제공과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식 함양과 같은 환경적 보호요소 증진을 위한 환경지원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대일 역할모델 제공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 이러한 집단적 요소들이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 상호관련된 두 개 이상의 요소가 단일한 프

로그램에 반영되기도 하였고, 반대로 하나의 요소를 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단순히 학습지원적 요소뿐 아니라 일대일 학습을 통한 건전한 성인역할모델 제공과 같은 환경지원적 요소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일대일 관계를 보완하는 하위 프로그램은 학습지도, 구조화된 놀이, 문제해결로 세분되며 대상자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중학생 프로그램으로 다시 세분하여 구성했다. 기본적으로는 일대일 결연을 해서 각 자원봉사자당 결연학생이 정해지고, 각자의 흥미와 전공을 고려해 일대일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배치되었다. 자원봉사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 이상 즉, 학습지원을 하는 식의 이중적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우선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영어와 수학과목을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결시켜 주 3시간씩 8주에 걸쳐 제공함으로써³⁾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건전한 성인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제해결 훈련은 주 1회씩 8주에 걸쳐 시행되었다.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기본적인 내용은 문제해결 기술의 습득과 적용으로 이루어지되, 각 학년의 발달수준에 맞게 사례와 학습매체를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문제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포괄적인 문제들로서 주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영역을 주로 다루었다.

또한 구조화된 놀이적 요소로서 글짓기, 음악, 미술, 레크레이션, 야외놀이활동 등을 정기적인 프로그램요소로 포함시켰다. 특히 발달단계가 낮은 초등학생들은 학습지원적 요소보다 이러한 놀이활동적 요소를 보다 강조하고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씩 8주 동안 제공했고, 중학생들에게는 매주 일요일 1회씩 8주간 수행했다.

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적은 멘티인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도모하고, 멘터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긍정적인 자아발달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산물목표는, 첫째, 실직가정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제고한다. 둘째, 실직가정 자녀들의 보호적 자원(내적 통제소재, 대인관계기술, 책임

3)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수행된 것은 8주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그 사이에 시험기간, 준비기간 등의 시간이 별도로 투여되어 실제 결연관계는 3월~6월에 16주~20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감, 자기유능감, 계획성)을 증진시킨다. 셋째,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긍정적 자아 발달을 도모한다고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별 내용과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개요

구분	기간/회기	목 표	내 용
학습 지원	주 1회 3시간씩 8주	1. 학업성취에 대한 자신감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습득 2.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증진 3. 건전한 역할모델을 통해 바람직한 생활방식과 가치관 습득	1. 주요교과 학습지도 영어 및 수학과목을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정기적으로 학습 지도한다. 2. 역할모델 제공 : 일대일 결연을 통해 건전한 성인역할모델을 제공한다.
구조화된 놀이	주 5회씩 8주 (초등반) 주 1회 8주 (중등반)	1. 사회성과 책임감 증진 2. 성취경험 체험 및 자기유능감 증진	1. 글짓기 : 다양한 주제를 주고 글쓰기를 지도한다. 2. 음악 : 다양한 노래배우기 3. 레크레이션 : 게임 및 야외놀이(건강 포함) 4. 미술 : 종이접기나 그리기
문제 해결 훈련	1회기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집단 성원간의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의 전체 일정을 소개하고 성원을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름, 구호, 리더 등을 선출한다.
	2회기	다양한 문제상황에서의 감정 파악 및 감정다루기 기술을 습득	느낌카드 게임을 통해 다양한 감정의 종류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감정다루기 방법을 연습해 본다.
	3회기	문제해결과정을 습득	소집단별로 전지에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 3단계 표를 만들어보고,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한다.
	4회기	문제상황에서 문제의 원인 파악	미완성문장을 응용하여 문제를 파악해 보는 연습을 해본다.
	5회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 이해	문제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제시된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임을 한다.
	6회기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방법 습득	인간관계의 문제상황을 다룬 비디오를 부분시청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소집단별로 논의해본다.
	7회기	다양한 관계영역에서의 문제해결 기술 적용능력 증진	가족과 또래관계에서의 문제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역할극으로 시연해본다.
	8회기	프로그램 총평가 및 문제해결 3 단계를 재인식	프로그램 회고 및 소감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마친다.

5.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설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통제집단 후 비교설계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이라는 특성상 검사에 익숙하며, 그 영향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사전조사의 영향을 배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입후에만 통제집단과 비교분석하였다.

멘터와 멘티 각각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전주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실직관련 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 본 프로그램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직가정 자녀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추천받은 학생들을 무작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선정하고, 실험집단에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와 부모의 실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할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는 대학생 멘터를 모집하기 위해 학기초 공고를 통해 전공을 불문하고,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을 교내에서 모집하여 대기명부(*waiting list*)를 작성하고, 명부 등록순서에 근거하여 실험과 통제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참여자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내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동의를 구했다.⁴⁾ 이상의 과정을 통해 모집된 대학생멘터와 멘티 중에서 설문에 협조하여 분석에 활용된 대상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표로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우선 멘터와 멘티 각각에게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만족도를 질문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보다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

4) 프로그램 참여에 앞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학생들이 빈곤한 실직가정 자녀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원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내용에는 자원봉사의 의의와 태도, 실직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구성, 자원봉사자들이 지켜야 할 태도 및 주의사항, 필수적인 기록양식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학기초 모집기간 이후에 등록하거나 다음 학기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한 경우는 대기명부에 등록시켜 통제집단으로 활용하였다.

〈표 2〉 분석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실직가정 자녀(멘티)			대학생 자원봉사자(멘터)		
		실 험	통 제		실 험	통 제
성 별	남	19 (40.4)	45 (63.4)	남	19 (28.8)	9 (26.5)
	여	28 (59.6)	26 (36.6)	여	47 (71.2)	25 (73.5)
학 년	초등	27 (57.4)	41 (57.7)	1학년	16 (24.3)	12 (35.3)
				2학년	13 (19.7)	11 (32.4)
	중등	20 (42.6)	30 (42.3)	3학년	27 (40.9)	8 (23.5)
				4학년	10 (15.2)	3 (8.8)
합 계	47 (100.0)	71 (100.0)	합 계	66 (100.0)	34 (100.0)	

를 위해 멘티들에게 사용된 도구는 박현선(1998)이 보호요소 측정에 사용한 책임감, 유능감, 대인관계기술척도, 계획성, 내적 통제소재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학교 적응 유연성 측정에 사용한 하위척도 중에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영역에 관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계획성, 책임감, 내적 통제소재 척도는 Alva(1989)의 Youth Coping Scale의 계획성과 책임감, 내적 통제소재 관련 문항을 박현선(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계획성과 책임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능감은 Hernandez(1993)의 유능감 척도를 역시 박현선(1993)이 번안하여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이다. 대인관계기술척도는 전석균(1994)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학교생활흥미 척도는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유연성 척도의 학교생활흥미 척도로서 학교나 교사, 수업에 대한 흥미와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통제소재(.82), 책임감(.60), 계획성(.71), 유능감(.82), 대인관계기술(.77), 학교생활흥미(.70)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타당도 또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내용 및 구성체타당도가 검증되었다(박현선, 1998: 58~60).

한편 멘터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는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제작한 청소년의 정신건강지수 척도 중에서 자아관련 하위척도를 활용하였다(이시형 외, 1997). 자아관련 척도는 다시 학업, 신체, 정서, 대처, 도덕 자아로 이루어지고, 이를 모두 합산한 점수가 전체 자아점수로서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이척도의 반분신뢰도는 .79이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로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타당도 검사를 위해 SCL-90-R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정상집단과 임상집단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비교적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이시형 외, 1997: 55~59). 통계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백분율, T-Test 등을 이용하였다.

6. 분석 결과

1) 프로그램이 실직가정 자녀(멘티)에게 미친 영향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85.1%, 집단프로그램은 74.7%, 특별활동은 88.4%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고 있고,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53.2%),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었다(59.6%)로 나타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3〉 참조).

한편 역할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즉, 멘터들과의 관계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를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74.4%,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와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가 각각 70.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의 꿈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우가 61.7%, 다른 사람들 돕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8.1%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와 같이 멘터들과의 관계가 생활영역, 진로, 가치관 등 멘티들의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직가정 자녀와 같이 고위험 아동, 청소년들은 교사나 부모와 같이 이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줄 만한 건전한 성인 역할모델이 주변에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학생 멘터와의 관계는 그들의 인생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직가정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실직가정 자녀로 이루어진 통제집단과 비교분석하여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동일한 실직상황의 자녀들 중에서 학기중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은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사후에 비교한 결과, 대인관계기술, 자기유능감, 계획성, 학교에 대한 흥미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대인관계기술을 보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적인 생활을 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프로그램이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직가정 자녀들이 실직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을 많이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3〉 멘토링 프로그램 대한 만족도 및 주관적인 인식

문항	응답 내용	빈도(백분율%)	계
학습지도의 유익성	매우 도움이 되었다	19 (40.4)	47(100)
	도움이 되었다	21 (44.7)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3 (6.4)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2 (4.3)	
	무응답	2 (4.3)	
구조화된 놀이 프로그램의 유익성*	매우 도움이 되었다	16 (61.5)	26(100)*
	도움이 되었다	7 (26.9)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3 (11.5)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의 유익성	매우 유익하였다	21 (44.7)	47(100)
	유익하였다	16 (34.0)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	3 (6.4)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5 (10.6)	
	무응답	2 (4.3)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예	25 (53.2)	47(100)
	아니오	21 (44.7)	
	무응답	1 (2.1)	
학교적응에 도움이 됨	예	28 (59.6)	47(100)
	아니오	18 (38.3)	
	무응답	1 (2.1)	

*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은 초등학생만 참여함.

〈표 4〉 멘터들과의 관계로부터 받은 영향

문항	응답내용	빈도(백분율%)	계
자신의 학교생활	매우 큰 영향을 미침	19 (40.4)	47(100)
	약간 영향을 미침	16 (34.0)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	0 (0.0)	
	전혀 영향주지 않음	8 (17.0)	
	무응답	4 (8.5)	
자신의 생각과 행동	매우 큰 영향을 미침	23 (48.9)	47(100)
	약간 영향을 미침	10 (21.3)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	6 (12.8)	
	전혀 영향주지 않음	4 (8.5)	
	무응답	4 (8.5)	
친밀한 관계 형성	매우 큰 영향을 미침	23 (48.9)	47(100)
	약간 영향을 미침	10 (21.3)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	5 (10.6)	
	전혀 영향주지 않음	5 (10.6)	
	무응답	4 (8.5)	
자신의 진로와 미래	매우 큰 영향을 미침	13 (27.7)	47(100)
	약간 영향을 미침	16 (34.0)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	9 (19.1)	
	전혀 영향주지 않음	5 (10.6)	
	무응답	4 (8.5)	
타인 배려 및 협조	매우 큰 영향을 미침	19 (40.4)	47(100)
	약간 영향을 미침	13 (27.7)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	8 (17.0)	
	전혀 영향주지 않음	3 (6.4)	
	무응답	4 (8.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대학기반의 멘토링프로그램이 실직가정 자녀들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대인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처와 적응, 계획있는 생활태도, 자신의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영향을 미쳤으며, 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표 5〉 학기중 프로그램이 실직가정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

변수명	집단 종류	사례수	평균	자유도	t
내적 통제소재	실험	45	3.31	114	.23
	통제	71	3.29		
대인관계기술	실험	46	3.02	115	1.67+
	통제	71	2.87		
책임감	실험	44	3.08	113	.75
	통제	71	3.00		
자기유능감	실험	46	2.96	115	1.67+
	통제	71	2.77		
계획성	실험	46	2.70	114	2.98**
	통제	70	2.42		
학교에 대한 흥미	실험	46	3.25	114	2.11*
	통제	70	3.02		

주 : + $p < .10$, * $p < .05$, ** $p < .01$

2) 프로그램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멘터)에게 미친 영향

대학생 멘터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63.6%라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만족의 사유를 실직가정 자녀들과 관계형성을 잘 하게 되어서, 본인도 실업극복에 일조하게 되어서, 타인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직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의식 고양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표 6〉 참조).

특히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대부분이 전공과 현장을 연결할 수 있었다 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는 문제해결훈련의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교과과정 중 배우는 집단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멘터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전공과 참여하는 하위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려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시간 외에 멘터와 멘티가 얼마나 접촉을 가졌는가를 질문한 결과 63.6%가 프로그램 시간만 만났고, 별도로 만난 것은 9.6%, 전화연락을 한 것은 10.6%라

고 응답해서 거의 대다수가 프로그램을 매개로만 멘티들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타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일 대 일 결연을 중심으로 비구조화된 만남을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즉, 그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일 대 일 만남이 위주로 운영되고, 보조적으로 집단이나 캠프가 짧은 기간 동안에만 운영되는데 반하여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 대 일 결연을 취지로 모이되, 구조화 또는 반구조화

〈표 6〉 자원봉사자(멘터)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 만족도

문항	응답 내용	문제해결훈련	학습지도	구조화된 놀이	계
만족 정도	만족스럽다.	9 (90.0)	19 (67.9)	14 (50.0)	42 (63.6)
	그렇지 않다	1 (10.0)	7 (25.0)	4 (14.3)	12 (18.2)
	무응답	0 (0.0)	2 (7.1)	10 (35.7)	12 (18.2)
	계	10 (100.0)	28 (100.0)	28 (100.0)	66 (100.0)
만족 사유	아이들과 관계형성방법을 알게 됨	4 (40.0)	12 (42.9)	10 (35.7)	중복응답
	타인을 도울 수 있음을 인식함	2 (20.0)	13 (46.4)	10 (35.7)	
	전공과 현장을 연결함	9 (90.0)	4 (14.3)	3 (10.7)	
	동료자원봉사자들과 친목도모	3 (30.0)	11 (39.3)	7 (25.0)	
	실업극복에 일조함	0 (0.0)	6 (21.4)	15 (53.6)	
	실직가정의 어려움을 공감함	1 (10.0)	6 (21.4)	4 (14.3)	
프로그램 시간 외 접촉	프로그램시간만 만남	7 (70.0)	16 (57.1)	19 (67.9)	42 (63.6)
	이외의 시간에도 별도로 만남	0 (0.0)	1 (3.6)	5 (17.9)	6 (9.1)
	만나지는 않아도 전화 연락함	3 (30.0)	1 (3.6)	3 (10.7)	7 (10.6)
	무응답	0 (0.0)	10 (35.7)	1 (3.5)	11 (16.7)
	계	10 (100.0)	28 (100.0)	28 (100.0)	66 (100)
유익성에 대한 인식도	아이들에게 매우 많은 도움이 됨	10 (0.0)	3 (10.7)	3 (10.7)	16 (24.2)
	아이들에게 도움이 됨	0 (0.0)	19 (67.9)	12 (42.9)	31 (47.0)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0 (0.0)	5 (17.8)	3 (10.7)	8 (12.1)
	무응답	0 (0.0)	1 (3.6)	10 (35.7)	11 (16.7)
	계	10 (100.0)	28 (100.0)	28 (100.0)	66 (100)
이후 자원봉사 참여	불참	2 (20.0)	2 (7.1)	1 (3.6)	5 (7.6)
	참여	5 (5.0)	24 (85.8)	17 (60.7)	46 (69.7)
	무응답	3 (30.0)	2 (7.1)	10 (35.7)	15 (22.7)
	계	10 (100.0)	28 (100.0)	28 (100.0)	66 (100.0)

된 형태의 집단활동을 통해 멘터와 멘티의 지속적인 만남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화나 프로그램 이외의 기타 만남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위 프로그램별로는 프로그램 시간 외에 접촉을 가진 프로그램은 놀이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프로그램 밖에서의 접촉이
보다 빈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특성은 멘터들이 언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 것
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대학생 멘터들의
결연관계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행정적으로
나 비용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프로그램이 멘티인 실직가정 자녀에게 유익하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71.2%로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의 유익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자
원봉사를 계속하겠다는 응답 또한 69.7%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지속적으로 멘터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표시해서 유익성이나 만족도가 지속적인 자원봉사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 멘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기

〈표 7〉 프로그램이 대학생 멘터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

변수명	집단종류	사례수	평균	자유도	t
학업자아	실험	45	18.95	68.6	.47
	통제	28	18.67		
신체자아	실험	44	12.00	70	2.22*
	통제	28	11.17		
대처자아	실험	45	14.17	71	1.97+
	통제	28	13.35		
정서자아	실험	45	23.69	69	1.26
	통제	26	22.38		
도덕자아	실험	45	17.57	43.5	1.75+
	통제	27	16.81		
전체 자아점수	실험	44	86.59	68	2.50*
	통제	26	82.69		

주: * $p < .05$, + $p < .10$

프로그램 사후에 통제집단과 비교분석한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전체 자아 점수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보다 자신에 대해서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멘토링 프로그램의 사회복지학적 함의와 향후 과제

IMF형 고아니 결식아동이니 하는 실직가정에 대한 사회의 요란한 관심도 한때이다. 경제위기를 조기극복했다며 매체들이 앞다투어 성급한 분위기를 형성하면서부터는 실직자들이나 그들의 가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 또한 뜸해지고 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인한 가정파괴, 가출 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문제는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하다. 그들의 어려움은 비단 점심을 굶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 가는 시간에 하루종일 혼자 집에서 방치되거나, 그나마 밤늦게 돌아온 부모에게서는 피곤과 짜증을 만날 뿐이다. 학교에서는 어떠한가? 준비물을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선생님은 결식아동을 조사한다면서 친구들 앞에서 손을 들게 한다. 배고픔보다 더 큰 좌절과 상처를 경험하고 마는 것이다.

매스컴에서 초점을 두고 홍보하던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사업이 육체의 빵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심리사회적 지원이나 상담은 영혼의 빵을 제공하는 것에 비견할 만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고위험에 처해 있는 실직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논의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러한 학계의 논의조차 소수의 비행청소년 관련 분야나 학교사회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들 또한 일 대일 결연에만 급급하여 실제 결연관계의 질관리(Quality Control)나 평가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학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비구조화된 일

대 일 결연에서 나아가 학습지원과 문제해결훈련, 구조화된 놀이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결연관계의 만남을 구체적인 프로그램 매체와 활동으로 구조화하고, 자원봉사자 선발, 결연관계 관리,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실천전략과 평가방법은 기존의 개별 자원봉사자의 신념이나 열정에 따라 달라졌던 기존의 멘토링의 질을 효과적으로 제고했다고 하겠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학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터와 멘티에게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직가정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실직가정 자녀들에 비해 대인관계기술, 자기유능감, 계획성,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표현력이나 자기주장, 미래에 대한 목표설정, 부모와 가족에 대한 이해나 학교생활과 친구에 대한 의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스스로 보고하였다. 한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자아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의 공감대 수준에 만 머물러 있던 대학 기반 멘토링프로그램의 상호적 효과성을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는 후비교만 수행한 연구 설계상의 한계이다. 물론 무작위 원칙에 충실하면 굳이 모든 실험설계가 전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조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장점보다 단점이 보다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설계가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설계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최대한 무작위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동질성 확보에 노력했으나 대부분의 실천연구가 그러하듯이 한 사례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무작위로 집단을 구성하는 데는 윤리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백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가들이나 후속 연구자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멘터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이 반드시 일 대 일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보다 심도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 대 일 관계에 충족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멘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멘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양적으로 충분한 숫자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를 담보로 하는 서비스만큼 자원봉사자들의 자질에 대한 관리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멘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훈련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지속성과 결연관계의 질을 관리하고 보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례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1인의 사례관리자에게 몇 개의 결연관계를 꾸준하게 관리하고, 이들 사례관리자들간의 상시적인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결연사례에 대한 현황을 교환하고, 교육이나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후속 연구자들에게는 장차 패널연구와 같은 종단 연구설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설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 특히 장기적 산물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기대하며, 나아가 결연관계의 질이 구체적으로 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즉, 사후에 산물만을 비교해서 대학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결연관계 과정에서의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직가정을 위한 경제적 원조나 중식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서비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부모의 실직이라는 위기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이들은 심리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밥이나 빵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의 영혼에 남을지 모르는 보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원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상균·김연옥·오정수·노혜련·김기환. 1997. "학생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승권·이승현. 1998. 《여성실직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선. 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resilience)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8호, pp. 35~58.
- 이시형·김진학·이세용·정현희. 1997. 《청소년 정신건강지수 개발연구》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Butcher, D. A. & Hall, E. 1998. "University Students Learn By Helping At-Risk Elementary School Students; Team Lincoln." *Social Work In Education*. 20(3). pp. 191~202.
- Conrad, D. & Hedin, D. 1989. *High school Community Service: A Review of Research and Programs*. Madiso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Frecknall, P. & Luks, A. 1992. "An Evaluation of Parental Assessment of Big Brothers/Big Sisters Program in New York City." *Adolescence*. 27(107). pp. 715~718.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pp. 127~136.
- Hamilton, S. F., & Hamilton M. A. 1992. "Mentoring Programs: Promise and Paradox." *Phi Delta Kappan*. March. pp. 546~550.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Ph. D. Diss. Stanford Univ.
- McLeod, J. D. & Shan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pp. 351~366.
- Nelson, C. & Valliant, P. M. 1993. "Personality Dynamics of Adolescent Boys Where the Father was Abs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76. pp. 435~443.
- Riecken, H. W. 1952. *The Volunteer Work Camp: A Psychological Evalu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Royse, D. 1998. "Mentoring High-Risk Minority Youth: Evaluation of the Brothers Project." *Adolescence*. 33(129). pp. 145~158.
- Tierney, P. J. & Branch, Y. A. 1992. *College Students as Mentors for At-Risk Youth-A Study of Six Campus Partners in Learning Program*. Public/Private Ventures.

Effectiveness of Mentoring Program for Increasing Resilience of Children from Unemployed Families

Park, Hyun-Su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it has been noted that mentoring program is viewed as a effective way of intervention for the youth at-risk and vulnerable, few empirical studies have documented the benefits of mentoring program on youth. This research focused on effectiveness of campus-based mentoring program for children of unemployed families. It examined psychosocial benefits of mentoring program on mentor and mentee using the experimental design, posttest-only control group design.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control and intervention group. Children who have participated in mentoring program marked higher scores than control group in various psychosocial aspects including interpersonal skills, self-efficacy, sense of plan and motivation of schooling. Also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participated as mentors marked higher ego-strength score than not.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is study recommended campus-based mentoring program as a effective growth-oriented program for the university students as well as the children of unemployed families.